

Overweight
(Maintain)

조선/운송/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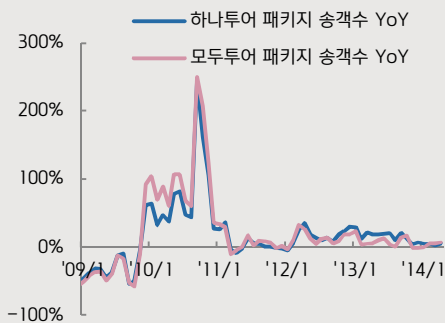
Analyst 조병희

02) 3787-5129 bhcho@kiwoom.com

이희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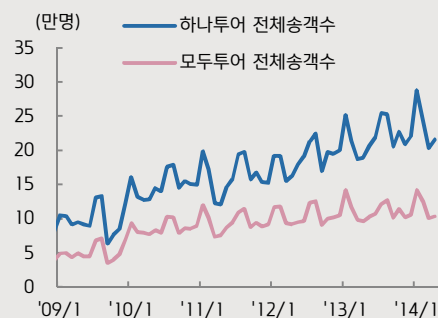
02) 3787-4704 heejae0403@kiwoom.com

양사 패키지 고객 YoY 증감률



자료: 하나투어, 모두투어

양사 총 송객수 추이



자료: 하나투어, 모두투어

- 당사는 5월 7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여행

침체된 사회 분위기 완화 이후 환율 효과 기대



하나투어는 1Q 동남아 노선 악재와 인센티브 충당금 적립으로 인해 기대치를 소폭 하회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주가 부진은 황금 연휴로 기대를 모았던 5월과 6월 예약률이 세월호 이슈에 따른 사회 분위기 침체로 인해 크게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태국 이슈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점도 부담이지만 원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분위기 완화 시기가 수요 회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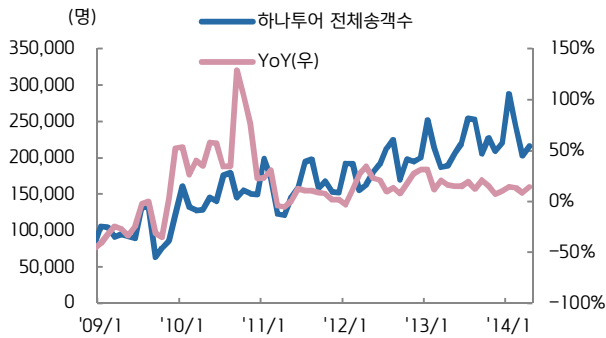
>>>하나투어: 4월 패키지 송객수 144,302명(YoY +5.1%),
티켓 포함 전체 송객수 215,845명(+14.1%)

- 하나투어는 1분기 IFRS 연결 기준 매출액 936.9억원(YoY 기준 +8.1%), 영업이익 91.1억원(-32.6%), 순이익 78.0억원(-31.1%)으로 기대치를 소폭 하회했음. 티켓 판매 비중 상승과 태국과 필리핀 이슈로 동남아 성수기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못했다는 점과 과거에 연말에 일시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금년부터 월별 충당금으로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인건비가 증가함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하락했음.
- 근로자의 날부터 석가탄신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 효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이슈에 따른 사회 분위기 침체로 2Q 여행 예약률이 급격하게 낮아져 5월, 6월, 7월 예약률이 -3.4%, +4.2%, 0%로 당초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패키지 여행 선호도로 인기가 높고 항공권 가격이 저렴한 태국의 정치적 불안 이슈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부담 요인임.
-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여행 비용 부담 감소가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분위기 완화 시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음.

>>>모두투어: 패키지 송객수 72,827명(YoY +6.3%),
티켓 포함 전체 송객수 103,122명(+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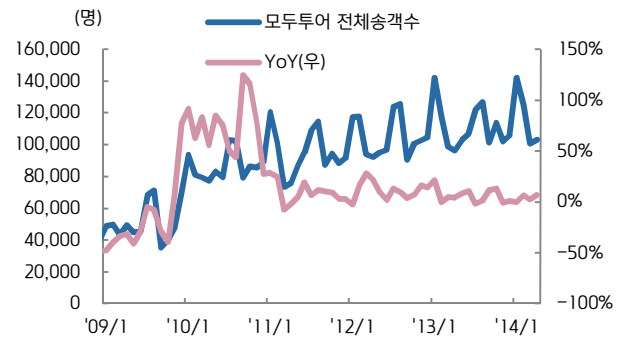
- 월 초에는 태국 이슈 영향이, 월 말에는 세월호 사고로 관련 공무원 및 단체 여행객 취소 이슈라는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했음.
- 구주와 미주 노선은 송객수 비중이 11%와 5%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 각각 41%와 20%씩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ASP 상승을 이끌고 있음.
- 5월, 6월, 7월 예약률은 각각 -4.9%, +3.2%, -4.5%로 세월호 사태 이전에 비해 상당히 둔화된 상황임. 원화 가치가 달러 당 1천20원대로 진입했고, 국내외 LCC들의 취향도 늘어나 가격 메리트 강화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침체된 사회 분위기 회복 시점이 수요 회복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함.

하나투어 패키지+티켓 고객수와 YoY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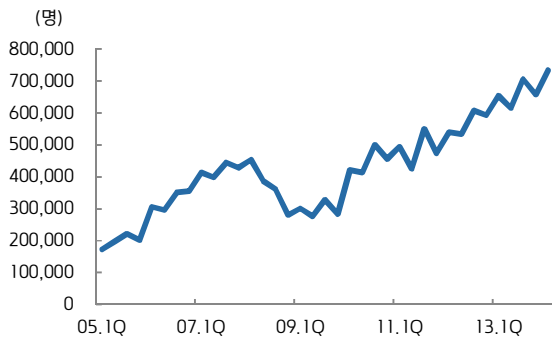
자료: 하나투어

모두투어 패키지+티켓 고객수와 YoY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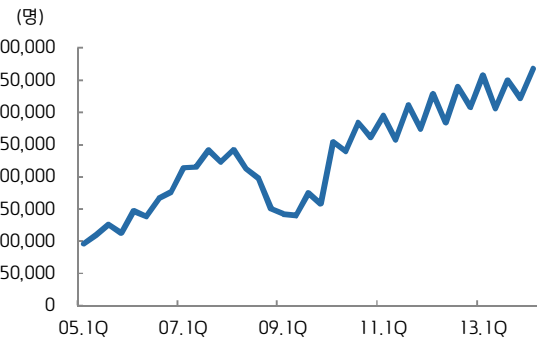
자료: 모두투어

하나투어 분기별 패키지+티켓 고객수 추이



자료: 하나투어

모두투어 분기 별 패키지+티켓 고객수 추이



자료: 모두투어